

산노 신앙

고토 열도의 주요 섬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한 나카도리 섬에 있는 산노 산은 먼 옛날부터 신앙의 대상이었습니다. 산의 사면에 우뚝 솟은 절벽과 동굴은 신의 영역으로 여겨졌습니다. 신자들은 그곳에서 의식을 치렀으며, 그중에는 오랜 시간을 산에서 보내며 정신 수양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윽고 산노 산은 천태종의 창시자인 사이초(767~822)의 가르침을 계승한 산노 신앙으로 이어졌습니다. 산노 신앙은 천태종의 총본산인 교토 히에이 산을 숭배하고, 히에이 산의 신들을 천태의 수호신이자 다양한 부처와 보살의 화신으로 삼는 것입니다. 산노 신앙이 어떻게 나카도리 섬에 전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세의 상인들과 승려들이 고토를 경유해 중국과 일본 사이를 오가며 들여온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산노 산에는 13 세기 후반부터 18 세기까지 만들어진 구리거울 17 개가 발견된 니노미야 바위굴을 비롯해, 고대와 중세의 신앙 장소가 여러 곳 발견되었습니다. 이 거울은 영혼을 사로잡는 신비로운 기도 도구로 여겨졌으며, 신자들이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곳에 두고 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산 정상으로 가는 등산로 입구 부근에는 멀리서 산의 신들에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요배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치노미야 신사와 니노미야 바위굴을 지나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면 해발 439m의 산 정상에 도착하게 됩니다. 산 정상에는 산노미야 신사가 자리 잡고 있으며, 전망대도 있어 고토 열도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